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현재

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
배경내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동방신기는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숭이가 되고 있는 이들은 또 누구인가?

존엄하게 똥 쌀 권리조차 없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경기도,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선포

서울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 지금 학교에 인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그리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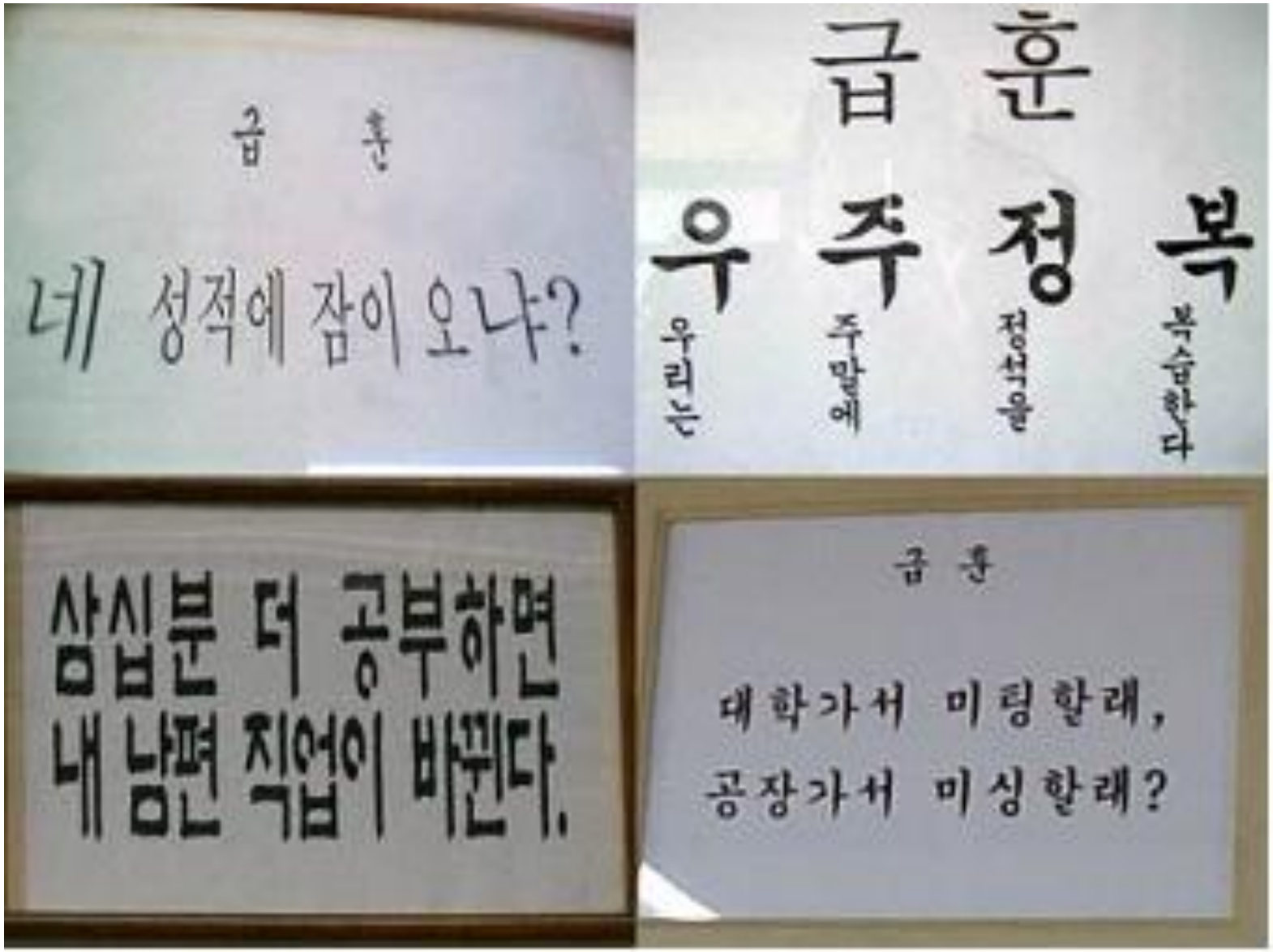
- ☞ 자발성에 기초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 ☞ 체벌,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등 폭력 없는 학교생활
- ☞ 차이가 존중되고 차별 없는 학교생활
- ☞ 학생의 의견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생활
- ☞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학교생활
- ☞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등 돌봄이 있는 학교생활
- ☞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생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정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체벌 전면 금지 정책

학생인권조례,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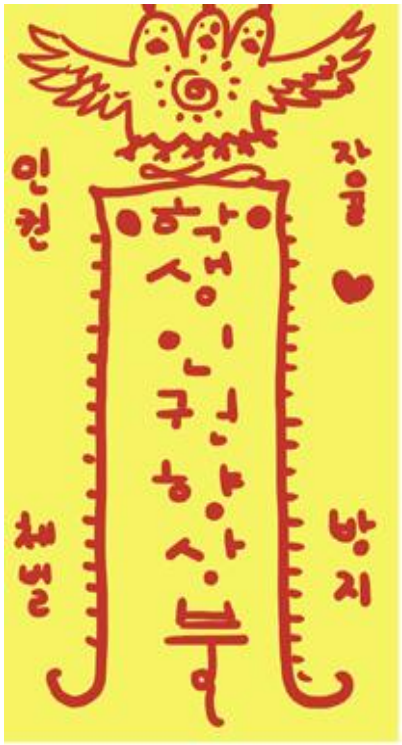
마침내 그날이 왔다!
제기랄..
중고등학생 최후의 날
학교개학


급 훈
네 성적에 잠이 오냐?
급 훈
우리는 주말에 정석을 복습한다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급 훈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주요 초중등 교육정책 변화

항목	내용
영어 공교육 혁신	초3~6학년 정규 영어수업 확대. 재량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학습 확대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추진 및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강화
	영어몰입교육 보류. 단 서울 1개 초등교 몰입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국제중학교 설립	내년 3월 영훈, 대원중 국제중으로 전환
	1단계 학생부 중심 5배수 선발, 2단계 토론 중심 3배수 선발, 3단계 추첨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2011년까지 농산어촌 지역 우수고를 중심으로 기숙형공립고 150개 지정, 지역 거점학교로 육성(올해 82개). 교원채용, 학사운영 등 자율화
	2012년까지 자율형사립고 100개교 도입
	2011년까지 미래형 직업전문고, 마이스터고교 50개 운영(올해 20개 지정)
고교선택제 실시	현재 서울 중2년생 2010년부터 최대 4개고까지 지원가능
	1단계 서울 전체 고교중 2곳 지원, 2단계 거주지 학교 2곳 지원, 3단계 인근학교 강제배정
학교자율화 추진	교과부 '0교시 수업', 우열반, 심야보충수업, 고교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후 학교, 사교육업체 운영가능
	서울시교육청, 이 가운데 '0교시 수업', 우열반은 금지
일제고사 부활	올해부터 초6, 중3, 고1 대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전국학력평가 실시
	2010년 시험부터 학교별 성적 3등급으로 나눠 공개
대입 3단계 자율화	2012학년도(현재 중3 적용)부터 수능 응시과목 축소 및 대입 완전자율화 실시

일제고사 – 정말 먹고 잘 시간의 문제인가?



☞ “체벌과 강제야자는 학생복지다”?

왜?

➢ 청소년 자살과 교육은 무관할까?

- 2004년~2008년 학생 자살, 5년 새 35.6% 증가. 성적비관 자살은 4.25배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09년)

- 2009년 학생자살 202명, 전년에 비해 47% 증가

- **청소년 20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시도**

  - 질병관리본부 발표(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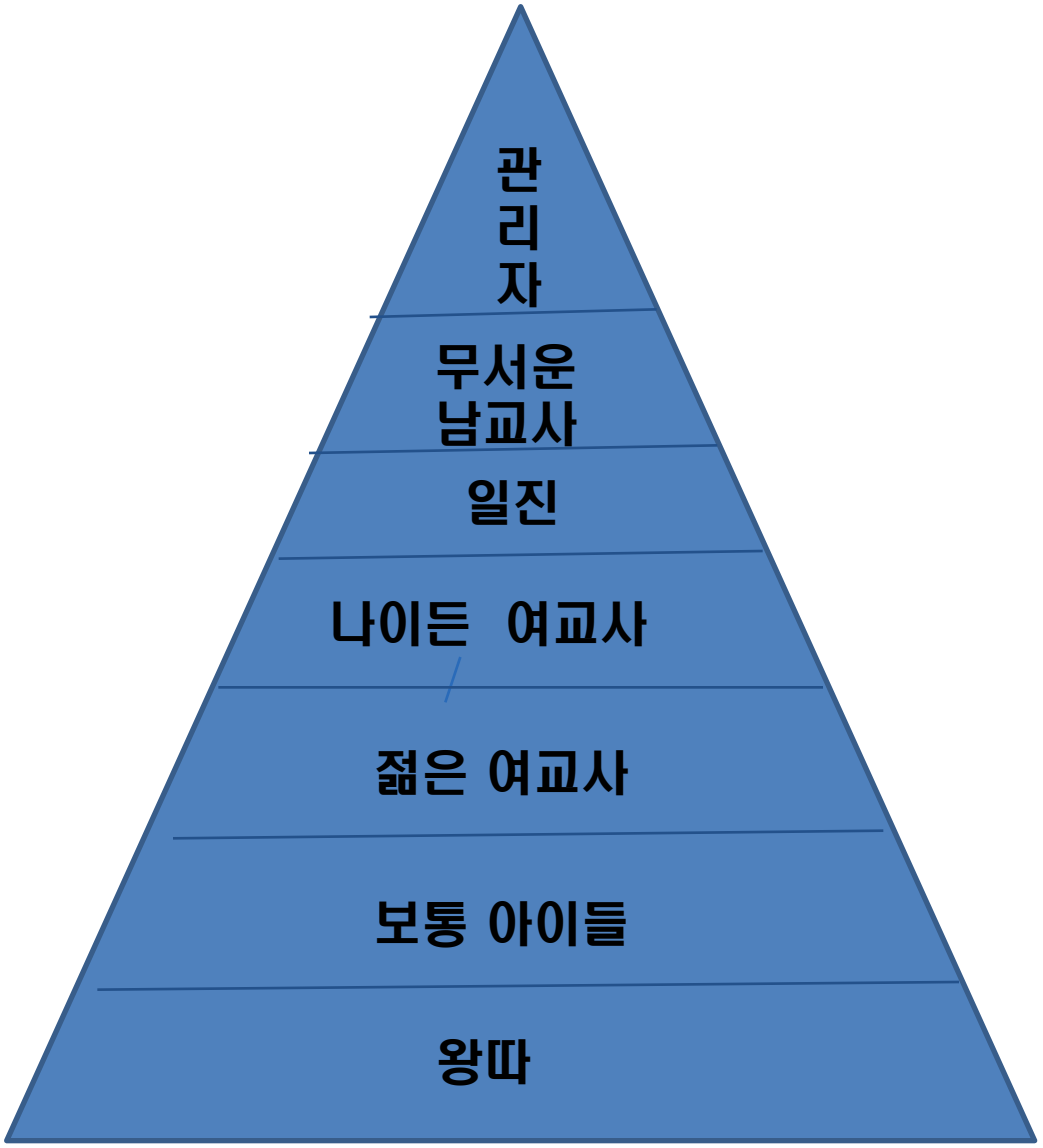
- 청소년 2명 중 1명꼴 자살 생각, 10명 중 1명꼴 자살 시도

  - 한국청소년상담원(08년9월)

-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

  - 통계청(09년)

➢ 비극의 이면, 폭력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나?



학교 안 힘의 피라미드

체벌은
학교의
폭력적 구조를
반영하고
재생산한다.

학생지도 가이드라인 '교과부 vs 서울·경기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직접적 체벌 금지 • 간접적 체벌(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허용, 범위와 수준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함	체벌	• 직접·간접 체벌 모두 금지 • 모든 학교의 체벌관련 학칙 개정	• 학생인권조례로 체벌 금지 • 모든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개정
• 학교가 학칙으로 정함	두발 복장 자유	• 새 학기부터 학칙 개정 통해 추진	• 학생인권조례로 두발길이 규제 금지 • 파마·염색 자율 기준 마련 • 교외 명찰 착용 금지 및 고정식 명찰 지양
• 학교의 자율성 위해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	학칙 인가권	• 교육감의 정책실현 제한, 교육자치 위배	• 교과부가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의도

간접 체벌은 체벌이 아니다?

콜 센터의 '서있게 체벌'과 얼마나 다른가?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학교에서 한낱 머리카락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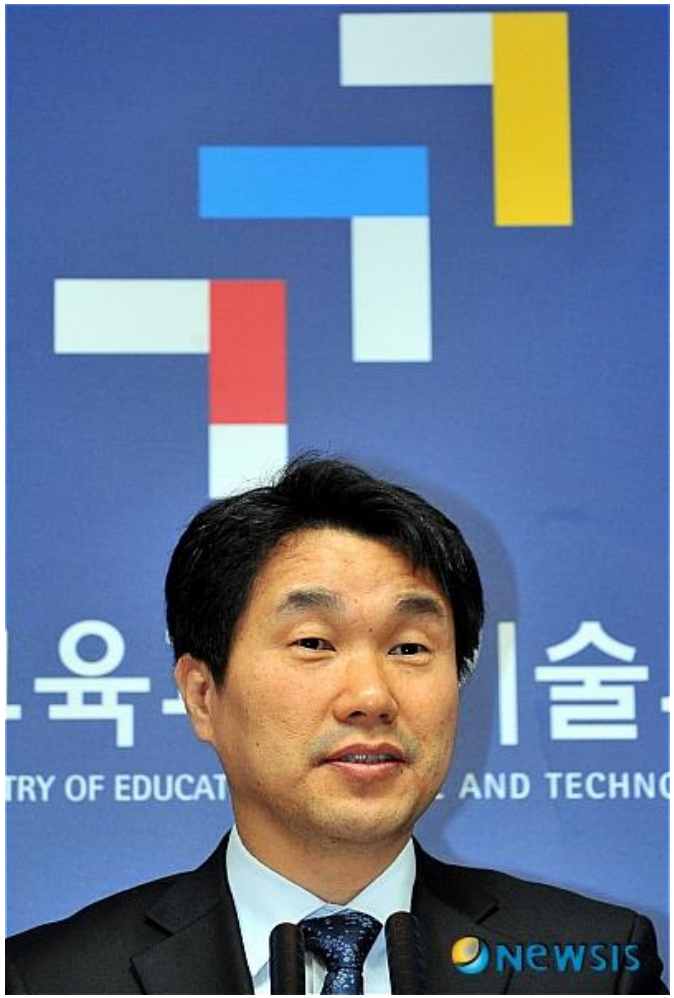
87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두발자유’ 요구

왜 그토록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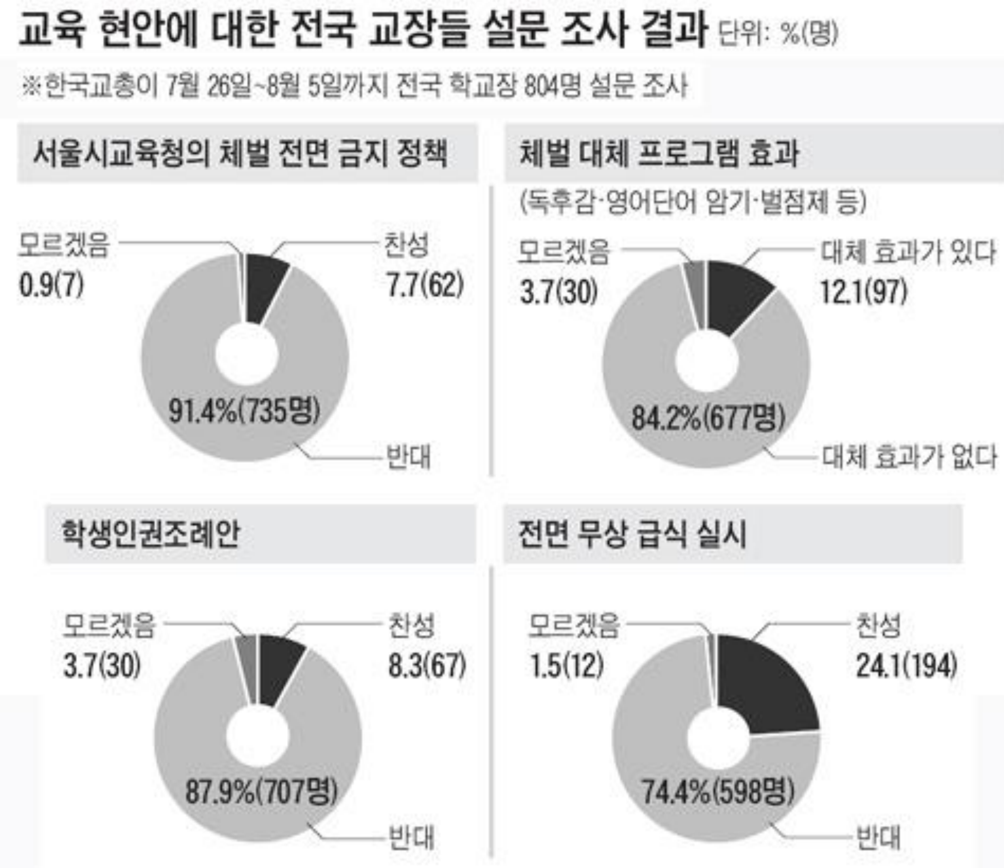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 무엇에 발목 잡혀 있나?

- ☞ 밑천이 참으로 없구나
- ☞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엉망이다
- ☞ 잃을 게 많은 이들은 참으로 전략적이고 열정적이다
- ☞ 교사들의 마음을 얻기가 참으로 힘들다

교총, 교과부, 한나라당이 교사를 위해주는(?) 시대



☞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 방안, 교사들 숨통 틔웠다?



좋은 기름 가득이요! S-OIL

東亞日報

"얼굴이 빨개졌다" 대한생명 스마트통합보험

-5℃ 경기 -13~-4℃ ▶상보 A15면

일 창간 제27835호 50판 dongA.com 2011년 1월 24일 월요일 단기4344년(음력 12월 21일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

'영웅' 석해균 선장과 선원들의 기지

고장내고 逆항해 들켜 뭇매 몰린 해적 "모두 선장때문" 들춰 찾아내 4발 보복총격

…관장, 엔진오일에 물섞어 고장유발
손재호 1등 기관사는 총탄 뚫고가 엔진 세워

"모든 게 선장 때문이다."

탕! 탕! 탕! 탕! 어둠 속으로 4발의 총성과 함께 불꽃이 번쩍였다.

21일 오전 5시경(현지 시간) 삼호주얼리호 상공에 최영함의 링스 헬기가 나타나 기관총 사격을 시작하자 구출작전이 개시됐음을 직감한 해적들은 석해균 선장을 찾기 시작했다.

선교에 모여 있던 한국인 선원들은 모포를 뒤집어쓴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해가 뜨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식별이 쉽지 않자 해적들은 일일이 모포를 걷어내며 선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윽고 석 선장이 발견됐다. 이미 해적들의 수차례 구타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한 해적이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으며 가차 없이 소총의 방아쇠를 4차례 당겼다. 이 중 총알 3발이 석 선장의 복부 정면과 엉덩이, 옆구리에 맞았다. 석 선장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해적은 작전 과정에서 생포됐다. 그를 발견한 선원들은 "저놈이 가장 악질이다. 저놈만큼은 여기서 죽이고 가지 왜 살려서 데려가느냐"고 특수전 요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석 선장은 '아덴 만 여명 작전'의 1등 공신이었다. 석 선장은 다양한 기지를 발휘하며 소말리아 해적들의 발을 묶어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 근거지로 가기 전에 구출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한 주인공이었다.

석 선장은 선박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해적 몰래 "엔진오일에 물을 타라"고 지시했다. 선장의 지시를 받은 정만기 기관장은 해적의 감시를 피해 물을 탔다. 이때부터 선박은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워졌다.

18일 청해부대가 1차 구출작전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엔진오일에 물이 들어간 탓에 삼호주얼리호는 자주 멈추는가 하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해적들은 근처를 지나는 몽골 선적 상선을 빼앗아 배를 갈아타려고 했고, 이를 놓치지 않은 청해부대는 1차 구출작전을 시도했다.

비록 이 작전은 부상자가 생겨 중단됐지만 적의 선박과 AK소총 3정을 빼앗아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작전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1차 작전으로 적의 전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차 작전 다음 날 오전에는 삼호주얼리호가 갑자기 소말리아의 반대 방향인 동북쪽으로 이동해 군 당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것도 석 선장의 작품이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해적들은 석 선장을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석 선장은 결국 왼쪽 다리가 골절되고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구타와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석 선장은 오만 살랄라항의 병원으로 이송돼 서너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때 혈소판 수치가 낮아져 청해부대 군의관 정재호 중위 등 장병 3명이 헌혈을 하기도 했다. 석 선장은 총상으로 대동맥과 다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감염이 우려돼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 팔에 골절상도 입어 깁스를 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A3면으로 이어집니다

삼호주얼리호 선원 7명 29일 귀국 예정

생포한 해적 5명 국내 압송해 처벌할 듯

군 당국은 청해부대의 구출작전으로 구조된 삼호주얼리호와 선원들이 27일 오만 무스카트 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붕우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육군 소장)은 23일 "최영함이 호위하는 삼호주얼리호는 오만 무스카트 항으로 이동 중이며, 27일 무스… 얼리호와 선원, 생포한 해적과 해적 시신을 무스카트 항에서 정부 신속대응팀에 넘겨줄 것"이라며 "최영함은 무스카트에 도착하면 3일 정도 머물면서 군수물자를 지원받은 뒤 2월 초 아덴 만 작전지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오만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석 선장을 제외한 한국인 선원 7명은 무스카트에 도착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받은 뒤 비행기 편으로 귀국하게 할 방침"이라며 "29일 한국에 도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스카트=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대한민국 자존심 구출한 최영함 승조원들 한 치의 실수도 하지 않은 완벽한 작전 수행으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한 청해부대 최영함의 조영주 함장(가운데)과 승조원들. 이 사진은 올해 초 함상에서 연 신년하례회 때 찍은 것으로, 요일 다음에 개설된 청해부대 최영함 공식카페 '푸른가족'에 올려져 있다. 인터넷 카페 '푸른가족' 캡처

1931~2011 박완서씨 타계

'못가본 길'로 떠난 문단의 어머니… 이 겨울은 쓸쓸했네

소설가 박완서 씨(사진)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타계했다. 향년 80세. 2010년 담낭암 진단을 받은 고인은 지난해 10월 수술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A8·31면에 관련기사

1931년 경기 개풍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현상공모에 '나목(裸木)'이 당선돼 소설가로 등단했다. 이후 '엄마의 말뚝' '미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를 출간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영원한 현역'으로 불렸다.

제14회 인촌상(2000년)을 비롯해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1998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993년부터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했고, 2004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으로 선임됐다.

1950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6·25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던 그는 2006년 국내 문인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족으로 호원숙(작가), 원순, 원경(서울대 의대 교수), 원균 씨 등 4녀와 사위 황창윤(신라대 교수), 김광하(도아상사 대표), 권오정(성균관대 의대 학장), 김장섭 씨(대구대 교수)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8시 40분, 장지는 경기 용인시 천주교 공원묘지. 02-3410-6916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목표의 5% 그쳐

4월까지 10만명 채우기 어려워… 주민발의 실패 가능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이 실패할 여지가 커졌다.

▶2010년 7월 29일자 A12면 참조

전교조 서울지부 등 33개 단체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만들어 지난해 7월 26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를 만들려면 유권자 1%(8만1885명)가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간 5000여 명이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4월 26일까지 남은 수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의 조례는 서명 시작 후 10개월 안에 시의회에 부의(附議)해야 한다.

전교조의 자체 전망도 어둡다. 전교조 소식통은 "조합원조차 조례제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힘을 얻지 못했다. 내부에서도 서명 운동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 돌린다"고 전했다. 체벌금지 조치가 교권 약화로 이어지면서 조례제정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전교조 내부에서도 많다는 뜻이다. 주민발의에는 만 19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전교조는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명운동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포함시켰다.

한편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학원 강…한테 학교 교사가 못 당한다" "무…입면도에 문제도 있었다"고 말한 … 대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인 기자

<동아>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목표의 5% 그쳐

4월까지 10만명 채우기 어려워...주민발의 실패 가능성

<조선>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실패할 듯

<뉴시스> 경기도 120여개교 학생인권조례에 '콧방귀'

<뉴데일리> 교장들 "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댈세

<동아> 전교조, 혁신학교 동원 조례 서명 계획

'무서운 10대들 ' 청소년 조직 절도 잇따라

[2008-04-24 07:44:56]

성폭력 '불안한 10대 · 무서운 10대'

무서운 10대…'무면허에 대포차까지'

[2008-05-06 14:24:51]

무서운 10대 여학생들, 금품갈취에 절도

[2008-08-06 11:07:41]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신 나간 좌파들이 무분별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하였다. 공격의 첫 대상은 청소년이었지만 애초부터 대처주의의 목표는 교원노조와 진보 전체였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진보의 가치 자체였다. 그 결과 영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압적인 '법과 질서'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 엄기호, <공격받는 청소년>

반면 학생인권의 얼굴은?

'추락하는 교권'...학생이 여교사 폭행

➢ 여교사 수난시대?

▲고등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쳐사진

- 선생님 꼬시기? 여교사 수난시대? 교권 문제로만 접근할 때 여교사는 피해자이자 무능교사로 전락
- 누가 표적으로 선택되었나? 상대적 약자인 신규, 비정규, 젊은 여교사가 주로 표적으로 선택되는 이유

☞ 폭력의 문화를 인권의 문화로 재구성해야 한다

교사임에도 학생인권을 말한다고?

"실내화 규정을 없애고 나니 아이들 눈을 보게 되더군요."

"애들이 제 앞가림은 하게 해줘야 내가 좀 편해지겠다."

"나 혼자 힘으로 애들 인권 못 지켜준다."

"혼자 교실 청소하는 거 싫다."

"매를 내려놓으니 질문이 시작되더라.."

“자유가 너희를 책임케 하리니..”

: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 학생은 인격과 자유를 존중 받을 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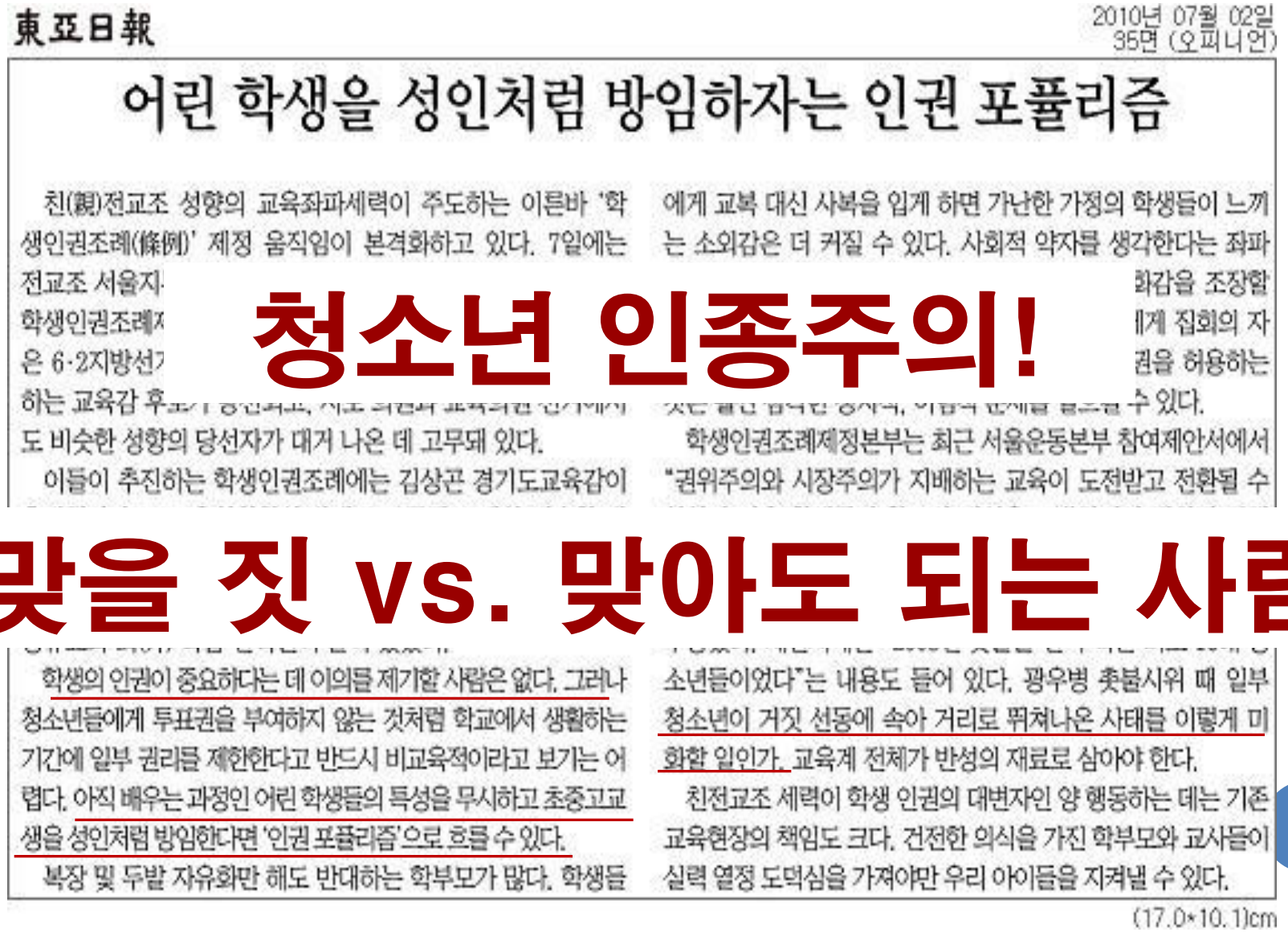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7항

☞ **한 고2 학생의 말 : “인권은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東亞日報

2010년 07월 02일
35면 (오피니언)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條例)'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에는 전교조 서울지
학생인권조례
은 6·2지방선
하는 교육감 후
도 비슷한 성향의 당선자가 대거 나온 데 고무돼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에게 교복 대신 사복을 입게 하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는 좌파
화감을 조장할
게 집회의 자
권을 허용하는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최근 서울운동본부 참여제안서에서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청소년 인종주의!

맞을 짓 vs. 맞아도 되는 사람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드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만 해도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다. 학생들

소년들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친전교조 세력이 학생 인권의 대변자인 양 행동하는 데는 기존 교육현장의 책임도 크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실력 열정 도덕심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17.0×10.1)cm

진짜 후보가 여기 있다!!
7.30 서울교육감 선거
캐발랄 젊은 후보
못 뽑으니까 나와봤다!
이딴 교육 받으면 이명박 된다!
★ 캐발랄한 핵심약속 ★
입시경쟁NO 다양&평등 교육으로~
0교시, 강제야자, 보충수업, 우열반 안됨!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인권보장!
영어교육정상화. 영어는 하나의 외국어일 뿐!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청소년 참가 Go~
교사소환제/인권교육 등, 벌보단 소통과 변화!
탈학교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서울시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http://csn08.tistory.com
* 실제로 등록한 후보가 아님. 선거법 위반이라고 잡아가지 마셈.

청소년이 교육의 주인되는 그날까지!
NO.0
레알 교육감 후보 청/소/년
zero
어른들의 꽉 막힌 귀를 삽질 하라
못 뽑으니까 또 나왔다
청소년이 직접 한다!
청소년배고 교육선거 웬말?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기호 0번 청소년
cafe.naver.com/realcsn
realcsn.tistory.com
입시경쟁, 시험지옥 그만!
두발복장자유, 체벌폐지, 강제야자보충 박멸!
식욕 돋는 학교, 꿈을 꾸는 학교!
빠져도 되지만 빠지기 싫어지는 학교!
차별은 없고 차이는 존중받는 교육으로!
학생에게 권력을! 학생에게 임금을!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가 아님다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가지 마셈!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공동체 생활규범

원칙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공동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 참여, 소통, 희망, 신뢰의 배움 공동체 가치를 구현한다.

각 구성원의 생활원칙

• 교사 : 체벌을 절대 하지 않는다. 욕설, 비속어, 증오발언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등

• 학부모 : 내 아이 중심에서 벗어난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등

• 학생: 자신을 가꾸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함께 성장한다(기다리기보다는 협조를 청한다/ 도와주기보다는 함께 해결한다)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방향

• 학생생활인권규정 마련의 민주성, 합리성 추구

• 유의사항

– 학생인권 존중 및 교사-학생 간 신뢰 구축 : 순간 감정 조절하기/ 교무실 호출 안 하기(벤치, 함께 걷기 등 활용)/ 무릎 꿇리기 안 하기/ 증오발언 안 하기/ 다수 앞에서 모욕주지 않기

- 지도 전에 먼저 상담하기

☞ **학교와 교사가 신뢰를 보여줄 때 생활교육이 된다**

☞ **수업혁신에 초점을 맞춘 장곡중, 차이는 '생활지도'에서 비롯**

이우고의 화장실 테러 사건, 교사들의 선택은?

학교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자

☞ 자치와 인권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왜 직접행동이냐고요? 왜 연좌데모를 하는 거냐고요? ...비폭력 직접 행동은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사회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직접행동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 마틴 루터 킹

체벌 논란을 넘어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체벌시대 vs. 벌점시대

‘포함에서 배제로’ 통제의 방향 전환

'잉여'를 만드는 구조

- 노동빈곤의 구조화 => 가족의 물적 토대와 규범적 영향력 축소
✓ Come back home? 돌아갈 집은 어디?

- 공식/비공식 청소년 고용 시장 증가, 독립에 대한 욕구
; 가족 외부의 자원과 관계망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가능성 증가

- 교육을 통한 지위 이동 기대 하락

➢ **비유예/ 비훈육 문화의 증가**

학생인권조례, 역전만루홈런을 꿈꾸다

➢ 역전의 비법

- ☞ 말을 건네자
- ☞ '관'에 기대는 사고를 버리자
- ☞ 하는 척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운동하자
- ☞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 ☞ 사회적 메시지를 바꾸자

✓ “가장 비싼 부작용도 가장 값싼 폭력보다는 낫다.”

✓ “백신 접종을 맞는 시기다.”